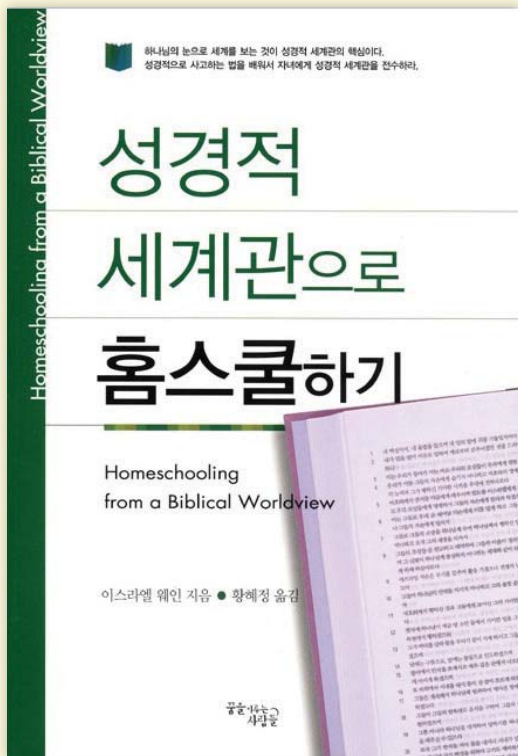


성경적 세계관으로 홈스쿨 하기

한국 사회의 교육열풍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만큼 강렬하다. 그러나, 교육이란 주제를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곳곳에 산재한 교육현실의 문제와 아픔에 고통스러워한다. 여기 기독교 교육을 위한 새로운 통찰을 주는 책을 소개한다.



한국 사회의 교육열풍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강렬하다. 그러나, 교육이란 주제를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곳곳에 산재한 교육현실의 문제와 아픔에 고통스러워한다. 여기 기독교 교육을 위한 새로운 통찰을 주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홈스쿨 하기>라는 책을 소개한다. 이 주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호감을 주지는 못한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홈스쿨이라는 방향도 일반인들에게 낯설고 힘들지만, '성경적 세계관으로 자녀를 가정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더욱 올라가기 힘든 목표처럼 보인다. 이 책을 읽으면, 오늘의 교육의 험난한 산을 성경적 가치로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지혜와 방법들을 배울 수 있다. 저자는 실제로 홈스쿨로 25년동안 양육되었으며, 현재 홈스쿨 사역을 하고 있는 전문가이다. 그를 통해 홈스쿨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적 세계관으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지, 왜 오늘날 홈스쿨링의 방법이 필요한 시대를 만났는지, 부모로서 자녀를 제자화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저자는 1장에서 홈스쿨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한다. 홈스쿨을 시작하는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제자화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다.

가정은 자녀를 제자화 하는 최고의 환경이다. 부모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녀에게 알게하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유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2장에서 저자는 성경적 가치관을 교육해야 하는 중요성을 말한다. 모든 교육은 세계관이 있다. 모든 사람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며 행동한다. 부모는 오늘날 세속적, 인본적 가치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자본주의 가치관을 이해해야 하며, 특히 현실과 교육 저변에 깔려 있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을 알고,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3장에서 그는 현실 세상의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사상의 폭격 속에서 자녀들이 성경적으로 사고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12가지 지침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이 원리는 논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인정하기에 자녀들에게 성경적 사고의 힘을 길러주는 기초가 된다.

4장은 실제적인 홈스쿨의 방법이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치는 것은 단지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는 이 장에서 역사, 과학, 수학, 언어, 철학, 문학, 미술, 음악의 과목을 언급하면서, 각 과목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인지, 기독교 세계관과 어떤 논쟁점이 있는지를 살핀다. 그 뿐 아니라, 각 과목의 성경적 세계관의 목적은 무엇인지, 어떻게 자녀에게 가르치면, 성경적으로 사고하면서 배울 수 있는지의 구체적인 추천도서와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있다. 이 장은 우리에게 오늘날의 교육에 스며들어 있는 각종 사상의 영향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의 모든 영역과 학문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게 한다.

5장에서 8장까지는 오늘날 홈스쿨 교육이 더욱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한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제자화하라는 권리와 특권을 주셨다.(7장) 그러나, 세상의 세속적 문화의 영향(5장)과 다문화주의 속에 숨겨진 절대적 진리의 부정(6장), 그리고 공립학교의 부정적인 사회화(8장)의 도전이 이 부모의 특권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부모는 이 절망의 문화 속에서 세속적 욕망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자녀에게 길러 줄 뿐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이용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자라게 해야 한다. 부모는 오늘날 팽배해 있는 다문화주의의 사고-모든 인종은 본래 평등하며 우월한 가치 체계는 없고, 모든 문화가 동등하다는 주장-속에 숨겨진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잘못을 이해하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또한 부모는 공립학교의 포래 집단을 통한 부정적인 사회화를 간파해서, 가정을 중심으로 한 긍정적인 사회화를 세워가야 한다고 말한다.

9장은 홈스쿨은 단순히 한 가정의 유익만이 아니라, 가정 사역을 통해서 세상의 잃은 자와 다른 그리스도인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





용해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구체적인 사역의 다양한 실재를 소개한다. 이것은 가족 구성원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에 가정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 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보여주는 신선함이 있다.

나는 부모로서 자녀를 제자화하는 소망을 가지고 2003년부터 홈스쿨을 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하지 않으면 세상이 자녀를 제자화한다’는 절박함으로 시작했다. 돌아보면, 홈스쿨은 우리 가정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가장 큰 변화는 부모의 변화이다. 홈스쿨을 하면서 알게 되는 사실은 부모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며,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간다. 이 부모의 변화는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는 놀라운 유익을 얻었다.

홈스쿨을 시작할 초창기 특별한 홈스쿨 안내서가 없던 그 시절에 비하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자녀를 홈스쿨링하기>라는 책은 홈스쿨의 목적과 방향, 비전을 확인 할 수 있는 훌륭한 안내서이다. 자녀를 제자화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다.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이 명령 앞에 고민해야 한다. 나는 감히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이 책을 읽어보고 각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기를 부탁한다. 저자가 서문에서 알려준 말이 나의 마음에 울린다. “홈스쿨은 답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복음이 답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세대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홈스쿨만큼 좋은 도구는 없다”고 한다. 그렇다! 어떤 교육을 선택하느냐는 부모의 지혜와 분별에 달려 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배움의 장은 가정이 분명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를 제자화하라고 불러주신 최고의 교사는 부모이다.

이 책을 통해 부모로서 다음세대를 제자화하는 거룩한 사명에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는 부모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부모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보고 사고하며 살아가는 다음세대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글. 강성한 목사, 주님의 은혜교회

